고대 일본의 도래계 직능집단에 관한 연구

- 外記, 官史, 楽人, 무관직을 중심으로 -

정진아*
jja0329@hanmail.net

Contents

Ⅰ. 서론
Ⅱ. 外記 및 官史
2.1. 外記
2.2. 官史
Ⅲ. 樂人
Ⅳ. 무관직
Ⅴ. 결론

Abstract

本研究では、外記、官史、樂人、武官(随身)職を中心に渡来系の技能官人について概観してみた。まず、外記と官史職は奈良時代から平安中期以降まで渡来系官人が連続的に登用されていた。雅楽寮中心の伝統的な雅楽体制は平安時代に移ると、唐楽と高句麗楽の両部体制に改編され、渡来系の中では多、狛、豊原氏が楽家の家柄を形成していきながら、左右近衛府に所属され競馬や相撲などのような武芸的な儀礼の場で奏楽を行うようになった。また、武官職においては、平安前期までは天皇を頂点とする天皇権力の保護や蝦夷征討の国家的な事業に活躍していた渡来系武官は、随身という藤原氏の個人的な身辺警護者、または競馬·相撲などのような摂関家の藤原氏を中心とする宮廷の武芸遊戯のための役割が多くなっていた。平安前期までは、天皇と個々の官人の君恩·奉仕の関係を主軸とする律令官人秩序の基本が維持されていたと言えるだろう。ところが、承和の変という政変により、少数貴族による官職の独占化が進み、また、叙爵制度が改変され特定官職における年労のみが評価されるようになっていく。即ち、官人たちは恣意的な抜擢より制度によって保証された定期的な昇進を望むようになった結果として、外記、官史、近衛少将・弁官出身などの様々な昇進コースが形成されていくのである。また、昇進の様相の特徴をみると、摂関家だけではなく、藤原氏の中で実資、行成などの政界の有力者との家主と家司の個人的関係による忠誠と給官の形も多くみられた。本稿での秦、惟宗、菅野氏は奈良時代から五

* 상명대학교 역사콘텐츠학과 강사. 일본고대사 전공.
이 논문은 2009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9-327-A00077)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位以上帯位者を出しており、平安中期以降は固有の家柄を形成していった。これに対して、日本出身の氏族をみると、官務系として小槻氏と中原氏が、随身においては尾張氏と播磨氏がそれぞれの家柄を形成している。これらの氏族は奈良時代には活躍がみられない新しい氏族である。このように、日本出身の氏族は、時代ごとにその登用において断絶性がみられるが、渡来系官人は連続性をもって官僚制秩序に組み込まれていったと言えるだろう。これは古代の中·下級の官人社会においては、渡来＝才技·技能を象徴する存在として位置づけられていたと考えられる。従って、日本的な蓄の意識によって他民族支配の象徴であり、永遠に日本の王権に帰属されるべき存在としてとらえられていた既存の渡来系氏族に対する認識を見直して、平安中期以降は固有の家職を保持する技能的な集団としてとらえる必要があると思う。

Key Words : 外記、官史、樂人、随身、家職、渡來系
(Oig·Gwansa(court recorder), Court Attendants, Court Music Group, Trade of House, Overseas)

Ⅰ. 서론

고대 일본의 율령국가 관료제 사회의 지배구조는, 천황과의 '君恩-봉사'의 관인제 질서와 官司적 질서라는 이원적인 질서에 의해 운영되고 있었으며, 이와 같은 이원적인 구조는 유기적인 상관관계 속에서 기능하고 있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1]. 하지만 이러한 질서로 설명될 수 있는 계층은 五位이상의 귀족관인이라 하겠으며, 천황을 매개로 하는 유위 권력자층의 질서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천황을 매개로 하는 계층적 위계질서의 제도권에서 이탈된 존재가 중·하급의 직능인들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중·하급의 직능집단은 나라시대부터 헤이안(平安) 시대에 걸쳐, 예능 및 음양, 무관, 官務(문서관련 업무)직등 각각의 고유한 가문을 형성해 가면서 일본 사회내에서 일정 부분 특수한 사회를 형성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직능인들은 율령제의 관사기구의 말단부에 존재하기 때문에 천황과의 개인적인 관계보다는 考(일정한 근속연수)를 쌓아 승진할 수밖에 없었으며 승진에도 제약이 가해졌던, 이른바 주류 계층이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헤이안 중기

1) 吉川真司(1998)『律令官僚制の研究』塙書房, p.41.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이후부터 천황을 중심으로 하는 율령국가 체제가 와해되어 가자, 중·하급의 관인들은 위계를 받는 것보다도 각 씨족의 고유한 職掌을 계승해 가는 것에 의미를 두게 된다. 이러한 사회질서의 변화 속에서, 중·하급의 도래계 직능인들도 가문의 특수성을 배태시켜 갔다.

지금까지 일본 고대의 도래인 및 도래계 씨족에 관해서는 많은 선학들의 연구에 의해 방대한 연구 성과로 축적되고는 있지만, 문화 전수-왕민화 과정(改姓, 관인화)-고대 일본 지배체제 속으로의 내재화라는 기존의 담론을 뛰어 넘을 수 있는 새로운 재조명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도래계 직능인들에 대한 연구도 한반도의 문화유입이 전성기를 이루었던 야마토 정권기에 머물러 있으며, 『日本書紀』와 고고학적인 발굴성과의 분석에 치중되고 있다[2]. 따라서 헤이안 시대까지를 섭렵하는 광범위한 연구의 부재는, 다양한 도래계 씨족 사회를 일방향적인 시각으로만 보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생각한다. 본고의 출발점은 이러한 인식에 기반을 둔 도래계 중·하급의 직능집단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며, 나라시대부터 헤이안 시대까지의 도래계 씨족의 고유한 직능의 형성과정을 통해 고대 일본의 도래계 씨족사회의 존재 양상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먼저, 본고에서는 도래계 직능관인 중에 나라시대부터 헤이안 시대까지 통시대적으로 사료가 남아있는 관직을 대상으로 한다. 이를테면 문필 업무를 담당했던 外記와 官史직, 樂人, 그리고 무관직으로 한정시킨다. 고대 율령상에 규정된 직능 관직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한정된 직능군들에 대한 연구가 도래계 직능인 사회를 규정지을 수 있는 절대 조건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나라시대부터 헤이안 시대까지 통시대적으로 사료가 남아있는 관직을 중심으로

2) 도래인 연구에 관한 대표적인 저서인 関晃(1996)의 『古代の帰化人』(吉川弘文館)과 平野邦雄(2007)의 『帰化人と古代国家』(吉川弘文館) 안에서는 야마토 정권기와 나라시대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이밖에 須藤護(2009) 「古代近江の轆轤工と渡来人」『竜谷大学国際社会文化研究所紀要』11; 鈴木靖民(2008)「古代日本の渡来人と技術·技能移転-製鉄·学芸を中心に-」『国学院雑誌』109; 花田勝広(2007)「古代の鉄生産と渡来人-倭政権の形成と生産組織-」『奈良大学大学院研究年報』12 등의 연구가 있다. 헤이안 시대의 도래계 직능인에 관해서는 高田義人(1996) 「官職家業化の進展と下級技能官人—陰陽寮を中心に—」『日本古代の国家と祭儀』雄山閣出版; 中野高行(1987) 「八·九世紀における外記の特質—『外記補任』掲載人名の分析—」『続日本紀研究』251; 曾我良成(1985) 「官司請負制下の実務官人と家業の継承」『古代文化』37 등의 선행연구가 있으나 도래계 씨족을 독립적으로 다룬 논고는 확인되지 않는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고찰해보는 것이 전체적인 도래계 사회를 재조명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시기는 헤이안시대 말기인 後三條천황조(1071년)까지로 제한을 두기로 하겠다. 院政으로 대표되는 白河천황의 집권기부터는 중세의 개시기로 보는 학자도 있으므로, 주로 섭관기까지의 기록류를 통하여 율령체제의 변환기에 도래계 직능집단들이 어떻게 그들의 직능을 형성하고 家職을 계승해 갔는지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초기의 선조 도래인들이 가졌었던 직능의 특수성도 점차 희박해져갈 뿐만 아니라 이미 일본 사회에 동화된 도래계 씨족과 비도래계 씨족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킨다는 것에 대해 부자연스럽다는 지적도 있을 수 있겠다. 하지만 卒傳이나 改姓기사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헤이안 시대에도 도래계 씨족들은, 당시 사회에서 통용되던 암묵적인 '蕃'관념에 지배되어 각 가문의 출자를 끊임없이 인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 한편, 개성 청원시의 선조의 연혁 등은 각 씨족의 후예들이 개성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논리로서 유효하게 작용하기도 하였다. 이는 도래계라는 출자가 각 가문을 형성해 나가는 데 있어 마이너스로 작용하기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작용한 점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배외의식과 폐쇄성을 상징하며 부정적인 측면에서 논의가 이루어져 왔던 '蕃'관념을 새롭게 조망해 보는 작업도 될 수 있을 것이며, 이와 같은 관념상의 인식구도를 벗어나 관인사회 내에서 실제적으로 기능하였던 도래계 씨족의 존재의의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부언하고자 한다.

Ⅱ. 外記 및 官史

외기는 太政官에 소속되어 조칙의 校勘 및 천황에게 상신하는 문서의 작성 등을 주요 職掌으로 삼고 있으며, 관사직도 태정관의 弁官局에 배속된 大史, 小史직으로 주로 공문서의 기록 및 작성을 담당했던 관직이다. 이러한 문필 업무는 도래인들의 전문 직장으로서 야마토 정권기부터 율령국가 형성기에 이르기까지 문서행정의 정착과 관인기구 시스템의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육국사 및 『外記補任』등에 의거하여 나라시대 및 헤이안 전기의 외기 및 관사직에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보임된 자들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1. 外記

【표1】나라시대 (출전:『續日本紀』)

인명	極位	주요보직	출자
菅野朝臣巨都雄	従五位下	大外記, 続日本紀 편찬사업에 참여	백제
葛井連白猪史広成	正五位上	大外記, 中宮少輔,備後守	백제
高丘宿禰比良麻呂	従四位下	大外記, 内蔵助, 法王宮亮	백제
伊吉連益麻呂	外従五位下	大外記, 遣渤海副使	신라
朝原宿禰道永	従五位下	大外記, 大学助, 皇太子学士	신라
池原公禾守	外従五位下	大外記, 主計頭	?
内臧宿禰全成	正五位下	大外記, 勅旨少輔, 大蔵大輔	東漢
上毛野公大川	従五位下	大外記, 主計頭	백제?

【표2】헤이안전기(출전:『日本後紀』『續日本後紀』『文德天皇實錄』『日本三代實錄』)

인명	極位	주요보직	출자	비고
広宗宿禰安人	正六位上	大外記, 領渤海客使	고구려	
三統宿禰理平	従五位下	大外記	고구려	
中科宿禰善雄	従五位上	大外記, 東宮学士	백제	
菅野朝臣惟肖	従五位下	大外記, 勘解由次官, 文章博士	백제	文章道
菅野朝臣継門	従五位下	大外記, 参河守, 和泉守	백제	
輿世朝臣貞町	外従五位下	少外記, 山背権介	백제	
高丘宿禰五常	外従五位下	大外記	백제	
山田造時宗	外従五位下	大外記 甲斐介	신라	
山田宿禰古嗣	従五位上	大外記, 左京亮	신라	
山田連春城	従五位下	大外記, 勘解由次官, 大学助	신라	文章道
秦宿禰安雄	従五位下	右少史, 少外記	신라	
長岑宿禰茂智麻呂	従五位下	大外記, 主税助	東漢	
内蔵朝臣賀茂麻呂	外従五位下	遣渤海使, 少外記	東漢	
山代宿禰氏益	従五位下	大外記, 勘解由次官, 豊前介	東漢	
坂上忌寸今継	従五位下	大外記, 文章博士	東漢	文章道
坂上宿禰能文	従五位下	左少史, 大外記	東漢	文章道
上毛野朝臣穎人	従四位下	大外記, 東宮学士, 民部大輔	백제?	文章道
上毛野公沢田	従五位下	大外記, 築前守	백제?	
高村宿禰田使	従四位下	大外記, 大学助, 東宮学士, 文章博士	한반도	文章道

* ?는『新撰姓氏録』에서 출자가 확인되지 않으나 선행 연구등에서 도래계로 추정되는 인물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표3】『外記補任』에서만 확인되는 인물들(天應1년~寛弘6년)

인명	極位	주요보직	출자
豊宗宿禰広人	従五位下	左大史, 主税頭, 陰陽助, 安芸介	고구려
船連湊守	外正五位下	大外記, 石見守	백제
菅野朝臣助道	従五位下	大外記	〃
菅野朝臣有風	外従五位下	右少史,大外記, 備後権介	〃
菅野朝臣君平	外従五位下	大外記, 淡路守	〃
菅野朝臣利蔭	従五位下	大外記, 紀伊守	〃
菅野朝臣清方	従五位上	大外記, 主計頭, 備後権介, 木工権頭	〃
〃 正統	従五位下	大外記	〃
〃 忠輔	従五位下	主税允, 大外記, 主税助, 出雲権介	〃
〃 重忠	従五位下	少外記, 大外記	〃
高丘宿禰相如	外従五位下	文章生, 少外記, 大外記,	〃
惟良宿禰高望	従五位下	大外記, 伊勢権介	〃
惟良宿禰有之	外従五位下	大外記, 土佐守	〃
御船宿禰弘方	?	右少史, 少外記	〃
御船宿禰有世	従五位下	主税少允, 大外記	〃
〃 伝説	従五位上	文章生, 大外記, 主税権助, 備後介	〃
葛井宿禰清明	従五位下	大外記, 淡路守	〃
朝原宿禰良道	従五位下	大外記	신라
朝原宿禰三行	外従五位下	中務少録, 大外記, 出雲介	〃
惟宗朝臣行利	従五位下	少外記, 大外記	〃
〃 輔兼	?	少外記	〃
〃 成親	?	権少外記	〃
秦忌寸斯頼	?	少外記	〃
〃 敦光	?	少外記	〃
大蔵朝臣善行[3]	従四位下	勘解由次官, 民部大輔	東漢
〃 是明	従五位下	大外記, 駿河守	〃
〃 良実	外従五位下	算博士, 大外記	〃
〃 真明	従五位下	勘解由判官, 大外記	〃
〃 中貫	?	勘解由判官, 少外記	〃
〃 弼邦	正五位下	主税権助, 大外記, 阿波介	〃
〃 高行	従五位下	少外記, 大外記	〃
坂上大宿禰恒蔭	従五位下	大学少允, 大外記, 長門守	〃
〃 高明	従五位下	文章生, 勘解由次官,大外記,	〃
〃 望城	従五位下	少外記, 大外記, 美濃介	〃
内蔵宿禰時景	従五位下	右京大進, 大外記	〃
〃 惟直	従五位下	右大史, 右京亮, 大外記, 主税頭, 主計頭	〃
上毛野公諸嗣	?	少外記	백제?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외기직에는 백제계 씨족이 다수 보임되었는데, 특히 헤이안 시대로 접어들면서 菅野씨의 진출이 두드러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3】 참조). 즉, 11세기 초엽까지는 외기직이 菅野씨의 가직으로 정착되어갔다고 말할 수 있으며, 일기류를 통하여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菅野씨는 主税·主計寮의 말단관직을 거쳐 외기에 보임되거나 이들직과 외기를 겸직하는 경우가 다수 확인된다. 먼저 実国은『権記』寛弘8년(1011) 8월 23일조에 主税允으로서 藤原行成의 아들인 良経의 元服행사에 봉사하고 있으며,『御堂関白記』長和1년(1012) 2월 25일조에는 外記직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左経記』寛仁4년(1021) 6월 4일에는 主税頭로 美作国의 減省勘文(正税가 줄어든 것에 대한 上申문서)이 늦어져 召問당하였다.

重忠은 寛和2년(986) 9월에 主税権少允에 임명되었으며,『権記』長徳4년(998) 12월 8일에는 藤原行成의 男児七夜에 女房衝重三十前의 행사 준비를 담당하였다. 長保2년(1000) 1월에는 大外記로 임명되었으며, 동3년 정월에는 従五位下에 서위되었다. 이 인물은 藤原行成의 家司 혹은 家人으로 추정되고 있다[4].

忠輔는『政事要略』天元5년(982) 3월 22일에 大外記와 主税助직을 겸직하고 있었으며,『小右記』寛和1년(985) 4월 30일에는 藤原実資의 딸인 三夜産養(출생후 3일째에 치루어지는 저녁의식)의 男方垸飯(남자쪽의 향응준비)의 행사를 담당하였다. 동2년 7월 22일에는 従五位上에 서위되었고, 이튿날에는 安芸権守에 임명되었다.

敦頼는 内膳典膳과 大学允을 거쳐 正暦6년(995) 정월에는 大外記직에 임관되었으며, 長徳2년(996) 정월에는 従五位下에 서위되었다. 그는 藤原実資의 家司로 있으면서 물심양면으로 實資를 돕고 있었다. 일례로『小右記』長和

3) 大蔵善行은 藤原時平과 菅原道真등과 함께『日本三代実録』,『延喜格』,『延喜式』의 편찬에도 참가하였다. 그는 時平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실제로 延喜1년 가을경에 時平이 <城南別第>에서 고희연을 개최하였는데, 축연에 참석한 紀長谷雄가 지은 詩序에 <(略)在朝之士. 伝授其業寔繁. 生徒不可勝数. (略)于時陪却閣下者. 蔵部尚書平惟範. 右大丞忠平. 右中丞興範. 尾州大守平伊望. 越州別駕統理平. 及発昭等. 総有二六人一. 皆是旧日趨庭之生(略)>이라고 전하듯이 善行의 문하생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중에는 大蔵卿, 右大臣, 右中弁 등과 같은 당대의 요직인물들도 그의 문하생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所功(1970)『三善清行』吉川弘文館, p.120).

4) 黒板伸夫(1991)「「藤原行成家」の家政と生活基盤」山中裕編『摂関時代と古記録』吉川弘文館, p.230.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2(1013)년 8월 9일조를 보면, 実資가 禅林寺를 참배하면서 堂宇건립을 위해 이 지역을 순방하였을 때, 그가 草庵에서 酒食을 제공하였다. 또한『小右記』治安 1년(1021) 2월 2일조에는 実資가 양자인 資頼를 伯耆守직에 임관시키기 위해 頓料(일종의 뇌물)인 麻백단을 당시의 세도가 藤原道長에게 헌납하였다. 이 때에도 実資는 그와 함께 頓料를 책정하였는데, 敦頼가 麻를 준비한 것으로 추정된다[5].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実資는 그를 위해 道長에게 給官을 청원하였고,『小右記』万寿1년(1024) 10월 10일에 敦頼는 淡路守에 보임되었다.

2.2. 官史

【표4】나라시대 (출전:『續日本紀』)

인명	極位	주요보직	출자
堅部使主人主	外従五位下	左大史, 大外記, 備前介	고구려
葛井連諸会	従五位下	右大史. 経国集에 対策文이 실려 있음	백제
麻田連金生	外従五位下	左大史	백제
〃 賦	外従五位下	左大史, 典薬頭, 右京亮	백제
秦忌寸老	正六位上	右大史	신라
坂上忌寸老人	従五位下	左大史, 山背介	東漢
文忌寸最弟	正六位上	左大史	東漢

【표5】헤이안전기 (출전:日本後紀』『續日本後紀』『文德天皇實錄』『日本三代實錄』)

인명	極位	주요보직	출자	비고
菅野朝臣継門	従七位下	左少史	백제	-
〃 高松	従五位上	左大史, 玄蕃頭, 紀伊介	백제	-
〃 良松	従五位下	左大史, 加賀介	백제	-
蕃良朝臣豊持	従五位下	右大史, 大炊頭, 備前介	백제	-
山田宿禰文雄	従五位下	右大史, 大和介, 勘解由次官	백제	-
三善宿禰清江	従五位上	左大史, 美濃介	백제	-
朝原宿禰諸坂	正六位上	左大史	신라	-
秦宿禰貞仲	正六位上	左少史	신라	-
惟宗朝臣直宗	従五位下	左少史, 大判事, 明法博士	신라	明法道

5) 渡辺直彦(1972)「藤原実資家「家司」の研究」『日本古代官位制度の基礎的研究』吉川弘文館, p.252.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坂上宿禰能文	従五位下	左少史, 少外記	東漢	文章道
長岑宿禰高名	正四位下	左大史, 次侍従, 右京権大夫	東漢	文章道
〃 恒範	従五位上	左大史, 伊豆守	東漢	-
高村宿禰田使	従四位下	右少史, 東宮学士, 文章博士	東漢	文章道
家原宿禰縄雄	従五位上	左大史, 主計頭, 主税頭	중국	算道
都朝臣御酉	従五位上	左大史, 因幡介	중국	-

다음으로 일기류에서 확인되는 인물들을 소개하자면, 헤이안 중기이후에는 惟宗씨가 관사직의 가직을 이어간 것으로 보인다. 惟宗씨의 舊姓은 秦씨로 방대한 씨족규모를 자랑하지만, 나라시대까지는 관인사회로의 진출이 약간은 부진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6]. 그러나 헤이안 전기에 惟宗씨로 개성한 이후에는 明法道, 明経道, 陰陽道등과 같이 다방면에 걸쳐 가직을 형성해 갔으며, 이중에는 관사출신자도 다수 확인된다. 먼저, 為孝는『権記』寛弘1년(1004) 정월 5일에 左大史로 従五位下에 서위되었다. 為重은『本朝世紀』正暦1년(990) 8월 27일에 左少史로서 結政(議案에 대한 문서정리)을 행하고 있으며, 貴重도『権記』長保3년(1001) 3월 25일에 左大史직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그는 藤原実資의 家人으로, 実資의 명을 받아 화재의 변고를 당한 藤原教義의 집과 병환중의 藤原公成의 위문에 파견되었다[7].『小右記』万寿4년(1027) 2월 14일조를 보면 為重은 実資로부터 말을 하사받고 있는 데, 이것도 家人으로서의 충실한 직무 수행에 대한 논공행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允正은 右大史 출신으로 후일 明法博士에 임명되었으며,『御堂関白記』寛弘4년(1007) 5월 30일조를 보면, 道長의 土御門저택에서 있었던 諸道박사들과의 논의에서 明法道의 三番문답에 배석하고 있었다. 道長은 일기를 통해 允正의

6) 야마토 조정에서 활약한 인물들을 중심으로 보면, 壬申의 난에 협력한 인물로 秦造右足(『日本書紀』天武1.7.9), 秦造熊(『日本書紀』天武1.6.29), 秦造綱手(贈位 大錦上位.『日本書紀』天武9.5.21)가 있으며, 雄略천황의 총애를 받은 秦造酒(『日本書紀』雄略12.10.10), 土左大神에게 幣를 봉헌한 秦忌寸石勝(『日本書紀』朱鳥1.8.13), 신라사절들을 영접한 秦造河勝이 확인된다. 나라시대에는 대규모의 조영사업에 의한 논공행상으로 叙位된 자가 많다. 秦忌寸嶋麻呂는 742년에 恭仁京의 담장을 축조한 공로에 의해 正八位下에서 従四位下로 서위되었으며, 秦忌寸足長은 784년 長岡京의 건설에 협력하여 外正八位下에서 従五位上으로 승진하였다. 이듬해에는 大秦公忌寸宅守가 太政官院의 담장을 쌓은 공로로 従七位上에서 従五位下로 관위가 상승하였다.

7)『小右記』治安元年十二月二十三日条, 治安三年正月十八日条。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문답이 가장 최고였다고 평하고 있다. 또한『小右記』長和4년(1015) 6월 23일조의 允正의 졸전을 보면 '昨勘解由次官令宗允正・散位方弘卒, 允正者明法博士, 當時絶倫者也, 一日妻死, 相次亡逝, 天亡文道, 悲哉, 日者諸道明人逐日亡滅, 世既盡了, 信心念仏之外, 可無他計而已(後略)'이라 하여, 藤原実資가 그를 당시의 絶倫者로 칭하며 文道가 끊긴 것을 슬퍼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명법가로서 탁월한 식견을 가진 그를 당시의 권문세가들이 총애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義賢은『小右記』長元2년(1029) 윤2월 11일조에서 左大史로 확인된다.『類聚符宣抄』長元3년(1030) 2월 20일자의 太政官符에는 이름이 결락된 '従五位下行左大史惟宗朝臣'이라는 자가 확인되는데, 義賢이『左経記』長元8년(1028) 6월 9일에 大夫史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태정관부상의 左大史는 義賢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寛仁3년(1019) 정월 5일에는 관백인 藤原頼通이 그의 栄爵을 청원한 것으로 보아 頼通의 家令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8]. 이 밖에도『平安遺文』623호의 寛徳2년(1045)의 '関白頼通家政所下文'의 서명에는 '掃部頭兼左大史周防権守惟宗朝臣'과 '施薬院使惟宗朝臣'의 압인이 확인된다. 이름이 결락되어 확인할 수 없지만 이 사람도 頼通의 家司로 볼 수 있을 것이다[9].

이상으로 나라, 헤이안 시대의 외기와 관사직에 보임된 도래계 씨족들에 대하여 고찰해 보았다. 야마토 정권기에 고대 관료기구의 기반형성과 문필 업무에 지대한 공헌을 한 바 있는 白猪史(→菅野, 中科, 惟良씨), 田辺史(→上毛野公씨), 山田史(→山田宿禰씨) 등과 같은 史계씨족이 헤이안 시대에도 외기와 관사직에 보임되는 경우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다음의 태정관부[10]는 도래계중에서도 內藏, 菅野, 三善씨가 문필업무의 가직을 계승해 간 사실을 뒷받침해주는 사료라고 하겠다.

太政官符民部省外改姓名
応改姓「名」左少史正六位上錦宿祢時佐事

8) 渡辺直彦, 前掲載, p.207.
9)『平安遺文』에서는 '掃部頭兼左大史周防守惟宗朝臣'에 대해 '茂昌'이라는 인물로 추정하고 있다.
10)『類聚符宣抄』貞元2年 券7 改姓.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男十三人本貫左京三条三坊

女五人

今請三善朝臣姓

右得時佐去二月二日解偁. 謹撿旧記. 時佐之先. 出自漢東海王之後波能志. 誉田天皇御世. 随葛木襲津彦帰化. 大鷯天皇御世. 随居地賜名錦織姓. 三善朝臣. 枝葉雖異. 本源是同. 謹撿先例. 外記官史主計主税之助.改姓之者古今尤多.近則右少史高安連佐忠給内蔵朝臣姓.右大史川瀬連保基紀朝臣姓.大外記御船宿禰傳說菅野朝臣姓.主計助山前連義忠賜伴宿禰姓.主税助錦宿禰茂明三善朝臣姓等是也.自餘之例不可勝計. 加以去延喜五年十二月二十九日宣旨偁. 改居姓濫有申請. 自今以後. 外記史諸道博士主計主税助左右近衛将監之外. 所進申文不得執申者.(후략)

이 관부는 백제계인 錦宿禰時佐외 일족들이 三善씨로의 개성을 청원하는 기사인데, 헤이안 시대에도 이들이 선조의 귀화전승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씨족차원에서 선조의 연혁이 계승되고 있다는 사실과, 도래계라는 출자가 개성의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外記, 官史, 主計등의 관직은 개성을 요구하는 자가 많았다고 하는 점과, 延喜5년에는 外記, 史, 諸道博士, 主計·主税助, 左右近衛府将監직 외에는 개성을 금하고 있는 점을 미루어 볼 때, 관부안의 '內藏·菅野·三善朝臣' 씨족들은 외기와 관사직을 가직으로 세습해 갔다고 말할 수 있겠다.

한편, 헤이안 시대로 들어오면서 도래계 씨족들이 외기나 관사직에 보임되는 예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다(【표2.3.5.】 참조). 특히 외기는 관위상 중하위의 관직이었지만 『外記補任』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은 실무 관인으로서의 독자적인 영역을 확립하였다는 뜻도 될 것이다. 외기의 권한이 증가하는 것은 9세기 초엽으로, 궁정의식의 증가와 함께 외기들은 의식의 제반준비 및 기록뿐만 아니라, 의식에 참가하는 諸司의 출결점호 및 준비에 대한 독촉까지도 수행하는 등, 지휘권이 점차 강화되기에 이른다[11]. 나아가 섭관체제가 확립됨에 따라 국가권력기관이 藤原씨의 家政기관적인 성격으로 변질되었고, 11세기 초엽부터는 官方, 外記方, 藏人方이라 칭하는 관사가 출현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外記局, 弁官局, 藏人局등의 실무관인들의 활동에 힘입은 바가 크다[12]. 특히 섭관기에는 변

11) 中原俊章(1996)「平安中後期の官人」『歴史評論』559, p.41.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관국과 외기국은 서로 업무를 협조, 분담하면서 국가경영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즉, 율령체제의 이완은 외기와 관사직의 역할증대를 초래하였고, 외기와 관사직의 오랜 전통을 가진 도래계 씨족들이 다수 임관된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였던 것이다.

또한, 외기나 관사는 이들 직을 거쳐 외직(지방관)이나 내직으로 보임되는 등 승진형태에 일정한 규칙이 작용하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표2.3.5.】참조). 이는 중·하급관인의 승진상의 叙爵制度의 개편에 따른 결과라고도 볼 수 있겠다. 842년 유력 귀족들에 의한 承和의 정변이 일어난 후에는, 藤原씨의 지배권이 확립되었고 이에 수반되어 藤原, 源, 橘씨에 의한 관직의 독점현상이 가속화되어 중앙정계에 여타 씨족들의 진출이 차단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13]. 아울러 文徳, 清和천황 등과 같이 幼少의 천황이 연속적으로 즉위하자 서위제도상에서의 천황의 발언권은 후퇴되어 갔으며, 관인들도 자의적인 발탁보다는 제도형태로 보증된 정기적인 승진을 요구하게 되어[14], 결과적으로는 외기, 관사, 近衛少将, 弁官직과 같은 중·하위관직도 각각의 다양한 승진코스를 형성하게 되었다[15]. 따라서 외기 및 관사출신의 도래계 관인들도 일정한 年労(고과)를 쌓아 내직이나 지방관과 같은 외직으로 보임되는 승진형태를 띄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또한 일기류에서 확인되듯이 菅野씨와 惟宗씨는 섭관가 뿐만 아니라 藤原實資, 行成과 같은 정계의 유력자와 家主-家司, 家人이라는 개인적인 관계에 의한 충성↔給官의 형태가 다수 확인되었다. 당시 세도가인 섭관가의 家司로 발탁되기 위해서는, 受領생활을 통해 부를 축적하여 탁월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자, 아니면 태정관내의 문서처리 등에 있어 선조대대로 계승되고 있는 '특수한 능력'의 보유자라는 어느 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했었다[16]. 문필업무의 전통이 오래된 도래계 씨족들은 후자의 조건에 의해 섭관가의 家司로 임명되었다고

12) 中原俊章(1996), 위의 논문, p.41.
13) 玉井力(1964)「承和の変について」『歴史学研究』286, p.23.
14) 高田淳(1988)「「巡爵」とその成立-平安時代的叙位制度の成立をめぐって-」『国学院大学紀要』26, p.116.
15) 高田淳(1988), 위의 논문, p.97.
16) 佐藤堅一(1964)「封建的主従制の源流に関する一試論」『初期封建制の研究』吉川弘文館, pp.278-279.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외기직과 主計·主税직등의 겸직이 많았던 것은 섭관가의 家産지배체제하에서 효율적인 정무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인사였다고 말할 수 있겠다. 또한 외기는 菅野씨가, 관사직은 惟宗씨가 가직을 계승한 것으로 보아, 이들 가문에는 이른바 '특수한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문서업무의 秘傳이 존재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바이다.

한편, 藤原実資는 외기 및 관사출신의 家司, 家人들을 지식정보의 입수원으로서 활용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 일례로『小右記』長和4년(1002) 6월 30일조를 보면, '左相府命尤可然, 引見前例, 昌泰四年閏六月晦日有大秡朱雀門者, 是外記日記, 延木廿年同六月無外記日記, 昌泰記書出授資平'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즉, 昌泰4년(901) 윤6월 30일자의 외기일기에는 朱雀門에서의 大秡의 기록이 있는데, 延木20년의 외기일기에는 기록이 없어 昌泰년간의 기록을 반출하여 資平에게 주었다는 내용이다. 외기일기는 본래 외기국에 보관되어 있어야 마땅한 일인데, 藤原実資 자신이 사적으로 소지하고 있으면서 필요한 때에 참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17]. 이는 実資가 외기직에 있었던 家人이나 家司에게 외기일기를 저택으로 가지고 오도록 의뢰하여 書写나 대출을 통하여 입수했을 가능성이 상정된다. 앞서 언급한 実資의 家司인 惟宗貴重은 관사출신이며, 家人인 菅野敦頼는 대외기직에 있었던 것처럼, 故実에 정통한 実資가 家主-家司의 친밀한 관계를 이용하여 기록류의 입수 및 행정업무의 자문을 구하고자 했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겠다.

Ⅲ. 樂人

고대 일본의 궁중의례에서 전문적으로 음악을 담당하였던 기관은 治部省하의 아악료이다. 養老율령에 규정된 아악료의 관인구성을 보면 樂官으로는 頭一人, 助一人, 大允一人, 少允一人, 大屬一人, 小屬一人이 배치되었다. 악관이라고는 하지만 '助' 이하는 실질적으로 악무를 연주하기도 하였다[18]. 樂人은 歌師

17) 松薗斉(1997)「外記局の変質と外記日記」『日記の家—中世国家の記録組織—』吉川弘文館, p.282.
18) 荻美津夫(1997)『日本古代音楽史論』吉川弘文館, p.231.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四人, 歌人三十人, 歌女一百人, 樂舞四人, 舞生百人, 笛師二人, 笛生六人, 笛工八人으로 구성되며, 아악의 구성은 당악 및 고구려·백제·신라의 삼국악 중심체제로 편성되었다. 먼저 나라시대부터 헤이안 전기의 사료에서 확인되는 악관 및 악인들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6】樂官

인명	출전	관직	출자
後部高多比	『正倉院文書』天平17.2.20	少属	고구려
林連嶋国	『正倉院文書』天平17.2.20	大属	백제
林連久麻	『東大寺要録』天平勝宝4.4.9	助	백제
津連真麻呂	『東大寺要録』天平勝宝4.4.9	大允	백제
雁高宿禰沙弥麻呂	『続日本紀』神護慶雲2.7.1	助	백제
清湍連雷	『続日本紀』神護景雲3.8.19	大允	한반도계
文忌寸広富	『日本三代実録』貞観17.1.21	少允	東漢

【표7】樂人

인명	출전	담당악무	출자	비고
文忌寸広田	『続日本紀』養老5.1.27	和琴師	東漢	才学이 뛰어나 賜禄
託多真玉	『続日本紀』養老5.1.27	唱歌師	백제계?	才学이 뛰어나 賜禄
忍海連伊太須	『続日本紀』天平勝宝3.1.16	踏歌의 頭	백제	踏歌봉사. 外従五位下수여
錦部連河内	『続日本紀』天平勝宝3.1.16	踏歌의 頭	백제	踏歌봉사. 外従五位下수여
李忌寸元環	『続日本紀』天平神護2.10.21	唐楽 연주	당	舎利출현의 축하연회에서 당악을 연주하여 従五位下수여
袁普卿	『続日本紀』天平神護2.10.21	唐楽 연주	당	〃
皇甫東朝	『続日本紀』天平神護2.10.21	唐楽 연주	당	〃
皇甫昇女	『続日本紀』天平神護2.10.21	唐楽 연주	당	〃
難金信	『続日本紀』宝亀8.3.16	百済 篌師	백제계?	行幸봉사에 의해 外従五位下수여
文忌寸広富	『東大寺要録』貞観3.3.14	唐舞師	東漢	東大寺의 無遮大会에 봉사
多自然麻呂	『日本三代実録』貞観1.11.19		백제	右近衛将監으로 外従五位下수여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나라시대에 五位이상의 상급관인을 배출한 津, 文, 林, 後部씨족이 악관으로 임명된 것으로 보아, 헤이안 전기까지는 전문 기능인으로서의 성격보다는 기예를 바탕으로 가문의 階序에 따라 등용된 측면이 많다고 생각한다. 실례로 津連眞麻呂는『續日本紀』의 편찬을 비롯하여 參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議직에도 보임되는 등, 學才가 뛰어났었던 인물이다. 악인을 보면, 당악을 연주하여 위계를 수여받은 李忌寸元環이나 袁普卿은 8세기에 일본으로 건너온 도래인 1세이다. 물론 이들에 의해 당악의 새로운 연주 기법 등이 전수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후 織部正과 大學頭에 보임된 바와 같이, 악인보다는 실무관인으로서의 성격이 농후하다고 하겠다. 또한 忍海連伊太須와 錦部連河內도 踏歌의 주악을 전문으로 하는 內教房소속의 악인이었던 것으로 확인된다[19]. 즉, 헤이안 전기까지는 악관과 악인의 경계가 모호할 뿐만 아니라 씨족에 따른 담당악무의 역할 고정이나 특정가문에 의한 악가의 형성기라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고대 궁중예능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아악료가 모든 기능을 수행하였던 8세기와는 달리, 헤이안시대로 들어서면서 아악료는 行幸이나 大饗, 節會, 踏歌, 競馬, 皇太子元服 등의 음악을 담당하게 되며, 內教坊에서는 정월 칠일의 節會, 內宴 등을, 近衛府에서는 親王元服, 諸社祭禮 등의 의식을 담당하는 등[20], 의식에 따라 특정 음악기관과 결합하게 된다. 나아가 궁정사회에서는 음악이 귀족들의 필수적인 소양으로 기능하게 되어 의식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천황이하 殿上人들이 스스로 음악을 연주하며 그 자체를 즐기려는 목적 하에 御遊라는 것이 탄생하며 樂所라는 것이 만들어지기도 하였다[21]. 악소는 법회 등을 위해 임시로 악인들을 두는 비상설기구로서, 상설화되는 시기를 두고서는 제설이 있지만 10세기 초반 경[22]을 염두에 둔다면 큰 무리가 없을 것이며, 악소를 통해 악가의 지위가 확립되어 갔다.

다음의 【표8】의 악소의 악인들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헤이안 중기이후에는 多, 狛[23], 豊原[24]씨가 악가의 가문을 형성해 갔다. 이중 多씨는 백제계, 狛씨는

19) 荻美津夫, 前掲書, pp.240-241.
20) 永田和也(1997), 「大内楽所と藤原道長の家楽所」『国史学』136, p.55.
21) 永田和也, 前掲載, p.56.
22) 荻美津夫(1997), 前掲書, pp.263-266.
23) 『続日本紀』神亀元年四月辛未조를 보면 <官官仕奉韓人>에 대한 賜姓이 행해졌을 때, 고구려계인 狛祁乎理和久가 <古衆連>에 賜姓되었다. 따라서 이 인물은 아악료 관련의 봉사에 따른 사성으로 추정해 볼 수 있지 않을 까 생각한다.
24) 天平宝字5년(761) 3월에 도래계 씨족들에 대한 집단적인 賜姓이 이루어졌을 때 고구려계인 上部王虫麻呂 및 上部王弥夜大理외 18명이 豊原造에 사성된 것으로 보아, 악가를 형성한 豊原씨도 고구려계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고구려계로 알려져 있으며[25], 각각 「多氏系圖」「狛氏系圖」가 존재할 정도로 헤이안 시대의 대표적인 악가라고 할 수 있다. 『樂所系圖』에 따르면 狛好行이라는 자에게 고구려인의 후예로서 '高麗'와 동음인 '狛'성을 하사한다고 기록되어 있는 데[26], 외기·관사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도래계라는 출자가 가직의 보증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 寺社의 악소에 보임된 악인들 중에는 아악료 출신들도 파악되는 것으로 보아 狛씨와 같은 씨족들도 조정의 명령에 따라 寺社에도 파견된 악인들로 추정되고 있다[27].

【표8】 樂所의 樂人

소속	인명	관직	전문악	출자
興福寺	狛行貞	左近府生	?	고구려
	行則	〃	左舞人	〃
	行光	〃	笛吹	〃
	則友	〃	左舞人	〃
	則助	〃	〃	〃
	光近	〃	〃	〃
	季時	〃	〃	〃
	行時	〃	〃	〃
	光弘	〃	〃	〃
	光行	〃	〃	〃
	則近	〃	〃	〃
	光助	〃	〃	〃
	行近	〃	〃	〃
石清水八幡宮	百済貞時	左衛門府生	篳篥	백제
京都方	豊原時廉	内舎人	笙, 笛吹	고구려
	元秋	右近府生	?	〃
	時秋	左近府生	笙, 笛吹	〃
	節行	左衛門府生	笛吹	〃
	公廉	右近府生	笙, 笛吹	〃
	光行	右近府生	笙, 笛吹	〃
	光秋	左近府生	笙, 笛吹	〃
	為持	右近府生	笛吹	〃

25) 林屋辰三郎(1970)「雅楽の源流」『雅楽』平凡社, p.37.
26) 荻美津夫(1997), 前掲書, p.267.
27) 荻美津夫(1997), 위의 책, p.271.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多 忠節	右近府生	右舞人	백제
	成方	右近府生	右舞人	〃
	忠光	內舍人	右舞人	〃
	好方	右衛門志	右舞人	〃
	近久	內舍人	?	〃

*荻美津夫의『日本古代音楽史論』을 토대로 작성

【표9】일기 및 문서류에서 확인되는 樂人

인명	관직/담당악무	주요내용	출전
狛近真	-	舞楽師	『大日本史料』5-14
光孝	左近衛府将監	楽所의 舞人	『大日本史料』2-13
光高	左近衛府将曹	大神祭의 使로 임명	『小右記』長和3.4.6
		藤原道長이 無量寿院에 백 여점의 絵仏像을 공양하는 의식에서 舞人으로 참가, 道長 및 公卿들에게 賜衣	『小右記』治安1.3.29
		道長의 法成寺공양회에서 舞를 봉사, 藤原実資에게 柏袖를 賜衣	『小右記』万寿1.6.26
		藤原彰子의 法成寺 東北院의 落慶의식에서 舞를 봉사, 관백에게 賜衣	『小右記』長元3.8.21
多脩正	右近衛将監	天慶7년 경마에서 乗人의 역할을 수행하여 右近衛府生에 임명됨	『大日本史料』1-8,11
公高	右近衛将曹	賀茂祭에 봉사, 摂政인 道隆에게 賜衣	『小右記』正暦4.4.15
吉茂	右衛門権少尉	敦康親王의 元服의식에서 舞를 피로	『御堂関白記』寛弘7.7.17
政方	右近衛将監	舞道의 일인자. 靭負尉를 신청	『小右記』治安1.12.14
		二宮(藤原彰子, 居貞親王)을 위한 大饗에서 舞를 봉사	『御堂関白記』寛弘2.1.2
		藤原彰子의 法成寺 東北院의 落慶의식에서 舞人으로 봉사. 아들이 納蘇利舞를 봉헌하였는데 심히 아름다웠다고 전함	『小右記』長元3.8.21
政資	右近衛将監	高麗舞師로서 番長에 임명됨	『小右記』万寿4.1.29
		政方의 子. 番長에서 右近衛府生에 임명됨. 相撲의식에서 舞人으로 봉사	『小右記』長元3.10.1
政行	三鼓師	踏歌 봉사가 소홀하여 過状을 제출	『小右記』治安3.5.7

한편, 【표8】 【표9】에서 특징적으로 확인되는 것은 악인이면서도 左右近衛府의 무관직을 겸직하고 있는 점이다. 이를 이해하기 위한 단초로서『延喜式』의 相撲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相撲節의 규정을 보면, '凡七月上旬, 差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官人幷雜樂人等, 分配左右相撲司, 左唐樂, 右高麗樂'이라고 하여, 이 의식에는 고구려악과 당악이 대표로 연주되고 있다. 여기에서의 주악의 주체는 아악료 소속의 악인들이 아니라 주로 衛府에 속한 악인들이다. 위부에 의한 주악의 시초는 9세기 초반의 嵯峨조로 보고 있는데, 아악료 소속의 악인을 일부러 부를 필요 없이, 신변에 近侍하면서 경마나 相撲 등과 같은 귀족들의 유희에 관여하였던 위부의 하급관인들에게 주악을 요청한 것이 위부에 의한 주악의 발단으로 여겨지고 있다[28]. 위부에 의한 주악담당 및 左唐樂, 右高麗樂으로 대표되는 양부체제로의 개편은 결과적으로 아악료의 쇠퇴를 초래하였고, 점차 아악료도 당악과 고구려악의 양부체제로 편성되어 갔다[29]. 따라서 多, 狛, 豊原씨 등과 같은 도래계의 악인들도 각각 左右近衛府에 소속되어 相撲이나 경마와 같은 귀족들의 유희의 장에서 주악을 담당하였을 것이며, 양부체제의 영향아래 狛씨는 左舞人, 多씨는 右舞人, 豊原씨는 笛吹와 같이 악무의 포지션도 각 씨족의 가직으로 고정되어 갔던 것이다.

그런데, 악소소속의 악인들의 출자를 보자면 고구려 출신이 수적으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데(【표8】참조), 이는 삼국악 중에서도 고구려악 중심으로 재편되는 양부체제와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고구려악은 국제성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중국의 수·당시대에 궁중의 연회음악으로 편성될 정도로 음악성이 뛰어났었다고 할 수 있다[30]. 또한 고구려악에는 일찍이 鼓吹의 전래가 보이는데,『後漢書』東夷傳·高句麗조에는 '使屬玄菟, 賜鼓吹伎人'이라고 전하고 있으며,『三國志』魏書·高句麗전에도 '漢時賜鼓吹伎人'이라고 하여, 이른 시기부터 고구려악은 軍樂으로 정비되어 갔을 것으로 추정된다[31]. 웅혼하고 상무적인 고구려음악이 위엄을 갖춘 儀仗적 의례나 승패를 가르는 귀족들의 유희에 적합하였기 때문에, 당악과 함께 삼국악을 대표하는 양부체제로 편성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나아가 출자와 악무의 연관성을 고려해 볼 때[32], 고구려 출신의 악인들이

28) 荻美津夫(1997), 前揭書, p.260.
29) 위의 책, pp.216-217.
30) 한흥섭(2000)『악기로 본 삼국시대 음악』책세상문고, pp.29-30.
31) 荻美津夫(1997), 前揭書, p.56.
32)『続日本紀』天平三年秋七月乙亥조를 보면 '大唐楽生不言夏蕃. 取堪教習者. 百済高麗新羅等楽生並取当蕃堪学者'라 하여, 삼국의 악생들은 본국 출신자들로 충원하라는 조칙을 내리고 있다. 즉, 아악의 고유한 악무가 도래계 씨족의 출자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우세를 점하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은 고구려악 중심의 악제개편에 따른 결과라 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양부체제로의 개편은 당악 및 삼국악 중심으로 편성된 일본 아악 체계의 근간을 허무는 큰 변화였지만 일본의 궁정음악이 대륙음악으로부터 탈피하여 일본 고유의 음악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즉, 正倉院에 소장되어 있는 악기는 18종류·75개인데 비하여, 양부체제 후의 아악료의 左方, 右方에는 8종류의 악기만이 편성되어 있었다[33]. 이는 주악의 비중은 감소되고 舞樂의 비중이 높아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고 하겠으며, 이러한 시류 속에서 도래계씨족인 狛씨는 左舞, 多씨는 右舞와 같이 가문 고유의 무를 계승해 갔던 것이라 추정된다.

【표9】를 보면 多吉茂-政方-政資와 같이 부자지간의 악인들의 활약이 눈에 띈다. 표에서도 잠깐 언급하였지만 多吉茂는 右舞의 명인으로, 70세인 나이에도 불구하고 춤을 선보인 吉茂에게 右兵衛尉에서 右衛門權少尉로 승진시키라는 천황의 특명이 있었다. 또한 吉茂의 아들인 政方도 二宮(藤原彰子, 居貞親王)을 위한 大饗에서 舞를 선보여 藤原道長과 공경대신들이 전례에도 없는 특별한 祿物을 하사하고 있다. 이들 부자는 右舞의 가직을 계승하여 「多氏系圖」의 성립에 이르게 된다.

한편, 이와 같은 가직의 계승이 당시 중·하급의 직능인들에게 있어서는 가문의 사활이 걸린 문제였다는 것을 다음의 사료가 증명해 준다고 하겠다.

> 『小右記』治安元年(1021)十二月十四日條. 今日関白云,「臨時音楽時前例被賞長彼道者, 右近将曹多政方申靭負尉, 而無前跡如何」. 余答云「前例従兵衛尉任靭負」. 又云「左兵衛府生大友成道可賞進, 而舞道第一政方也, 彼所申無例, 相共不賞進抽賞成道, 如何」余答云「被賞次者可無便歟, 就中成道欲殺害政方之由, 即政方所申云々, 政方及子被疵, 未被決真偽之間, 於御前有抽賞, 天下有所申歟」関白諾矣, 仍無賞進歟, 下官只為世所申也.

며, 헤이안 중기 이후에 고구려계인 狛씨와 백제계인 多씨가 각각의 楽家를 성립해 가는 것을 볼 때, 天平3년의 규정은 각 시기마다 여건이 크게 충족되지는 못했을지라도 헤이안 시대에도 유효하게 작용하였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33) 이지선역(2003)『일본음악의 역사와 이론』민속원, p.43.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위의 사료를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관백인 賴通이 말하기를 “臨時音楽의 때에는 舞道가 뛰어난 자를 한명 뽑아 상을 주는 것이 관례인데, 右近将曹인 多政方이 衛門府의 靭負尉에 임관되고 싶다는 뜻을 밝혀왔다”고 했다. 이에 대해 實資는 “右近衛府소속이 衛門府의 靭負尉에 임명된 전례가 없었다”고 답했다. 관백은 “左兵衛府生인 大友成道에게 상을 주고 싶지만, 舞道에서의 일인자는 政方이다. 이인자에게 상을 준 전례가 없으므로 大友成道의 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자모두 상을 주지 않는 것으로 할지, 아니면 大友成道만을 추천하여 상을 주는 것은 어떨까”라고 물었다. 實資가 대답하기를 “이인자에게 상을 주는 것은 이치에 어긋나며, 특히 大友成道는 多政方을 살해하려고 하여 多政方부자가 상처를 입은 사건도 아직 결착이 나지 않은 상태이다. 천황 앞에서 大友成道에게만 상을 주는 것은 세간으로부터 이론(비판)이 있을 것” 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관백도 동의했다.

전후사정은 확인할 수 없지만 右舞의 이인자였던 大友成道가 多政方을 살해하려고 했던 것은 右舞道의 수위를 놓고 多政方과의 치열한 대립과 경쟁이 있었다는 점을 짐작하게 해준다. 특히 하급의 무관직을 임명함에 있어서 당시 최고 집권자였던 관백인 賴通도 관여할 수 없는 바였고, 實資가 ‘天下有所申’라고 언급한 것처럼 諸道의 일인자에게 논공행상이 돌아가도록 하는 규칙은 하나의 불문율처럼 인식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다. 율령체제가 이완된 시기에도 중·하급의 직능인들의 승진에는 철저한 실력주의가 관철되는 사회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도래계인 狛, 多, 豊原씨가 경마나 相撲과 같은 귀족들의 유희에 동원된 예속악인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가직을 둘러싼 씨족들간의 경쟁이 치열한 당 시기에 살아남은 ‘音道의 승자’로서 큰 의미를 두어야 할 것이다.

Ⅳ. 무관직

나라시대부터 헤이안 전기까지 무관직을 가직으로 계승한 대표적인 도래계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씨족을 들자면 坂上씨를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일례로『文德天皇實錄』嘉祥3년(850) 8월 3일조의 坂上大宿祢清野의 졸전을 보면, '右兵衛督正四位下坂上大宿祢清野卒. 清野. 贈大納言正二位田村麻呂第四子也. 少慣家風. 武藝絶倫'이라고 후세의 사가들이 평하듯이, 坂上씨의 가문은 일찍부터 무관직의 가풍을 형성해 갔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헤이안 중기가 되자 坂上씨의 무관직의 등용은 점차 퇴보를 보이게 되며, 대신 左右近衛府의 하급 무관직에 御春씨와 秦씨가 우위를 점하게 된다. 본래 左右近衛府는 궁중의 수위나 경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군사 및 경찰직의 역할을 수행하였던 무관직으로, 11세기 이후에는 천황측근의 近衛官으로서 각종의 칙사나 雜任, 경마 등의 무예나 악무를 봉사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게 되었다[34]. 그렇다면 헤이안 시대의 대표적인 무관계 직능집단인 御春, 秦씨의 보임형태의 특징은 무엇이며, 어떠한 형태로 가직을 계승해 갔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御春씨는 舊姓이 飛鳥戸造로, 弘仁·貞觀기에 百済宿祢에서 御春朝臣으로 개성된 자들과 承和년간에 御春宿祢에서 御春朝臣으로 개성된 두 부류가 있다[35]. 御春씨 중에는 나라시대에 무관직에 임명된 자가 확인되지 않으나, 헤이안 전기로 접어들면서 御春朝臣浜主가 鎭守将軍을 역임하였고, 嘉祥3년(850)에 仁明천황이 붕어하자 真浜이 近江固関使에 임명되었다. 또한 貞觀년간에는 峯能이 진수장군에 임명되었고 仁和년간에도 種実이 진수장군직에 보임되는 등, 에미시 정토와 관련된 진수장군직이 御春씨의 전문직으로 계승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헤이안 중기로 들어서면서 御春씨는 에미시 정토사업의 수행보다는 左右近衛府에 소속되어 相撲人으로 발탁된 자들이 눈에 띄게 된다. 먼저『小右記』寛和1년(985) 1월 9일조에는 御春佐安이 左近衛府의 荒手結(射禮, 相撲등의 경기 전날에 행해지는 예행연습)一手로 이름이 올라와 있다. 助安의 아들인 時正은『権記』長保2년(1000) 8월 12일에 경마 五番의 左助手로 출장하여 승리하였으며,『小右記』長和2년(1013) 7월에도 출장하였다. 이밖에『小右記』永

34) 笹山晴生(1962)「平安前期の左右近衛府に関する考察」『日本古代史論集』下 吉川弘文館, pp.596-597.
35) 佐伯有清(1982)『新撰姓氏録の研究』考証篇5 吉川弘文館, pp.472-473.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祚1년(989) 4월 28일조를 보면, 清助는 藤原兼家저택에서 있었던 경마에서 左近将曹로 출장하였다.

다음으로 秦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도래의 연혁이 오래된 대표적인 씨족인 秦씨는 광범위한 동족규모를 자랑하던 씨족이었던 만큼 나라시대에는 개개인의 무공에 의한 등용보다는, 대규모의 군사적 징발을 통해 집단적인 경호수행의 임무를 부여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続日本紀』 天平12년(740) 10월 丙子조를 보면, '(前略)正五位下藤原朝臣仲麻呂為前騎兵大将軍, 正五位下紀朝臣麻路為後騎兵大将軍. 徴発騎兵東西史部・秦忌寸等惣四百人'이라 하여, 도래계인 東西史部외에도 秦씨가 聖武천황의 호위직을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헤이안 중기로 접어들면서 秦씨는 近衛府를 중심으로 随身직을 가직으로 계승해 가는 경우가 증가한다. 영외관인 수신직은 太上天皇 및 섭관, 近衛次将 등의 신변경호를 담당하는 무인으로서 주인과의 인격적인 결합관계가 지적되고 있다[36]. 한편 본업인 경호직을 수행하면서 귀족들의 武戯라고도 할 수 있는 경마나 相撲에 출장하는 무관들이 많았는데, 일기류에서 확인되는 자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10】 秦씨와 무관직

인명	주요 보임관직	주요 기사 내용	출전
秦為国	藤原道長의 随身	藤原頼通의 弓師로서, 賭弓의식에 賜禄	『御堂関白記』寛弘1.10.10
		敦成친왕의 55일 의식에서, 藤原公季에게 賜衣	『小右記』寛弘5.11.1
		藤原実資의 任大臣 의식에 봉사	『小右記』治安1.7.25
秦延 命(信)(名)	藤原公季의 随身 左近府生, 左将曹	禎子内親王의 50일 의식에 봉사하여 藤原道長에게 賜袍	『小右記』長和2.8.27
秦吉正	随身, 政所随身	馬場所掌에 지명됨	『小右記』寛仁3.2.19
秦近年(親)(利,俊)	相府의 随身 左近番長 藤原教通의 随身	御馬乗에 보임됨	『小右記』長和3.6.15
		경마에 出場	『小右記』寛仁1.9.23
		賀茂祭에 봉사	『小右記』治安3.4.16

36) 中原俊章(1987)「随身と雑色」『中世公家と地下官人』 吉川弘文館, pp.63-64.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秦氏則	藤原兼家의 随身 左近番長 左近府生	円融寺의 朝覲行幸시, 거친 말을 잘 조련하여 탔다는 공로가 인정되어 府生에 임명됨	『小右記』永祚1.2.16
		藤原兼家의 저택에서 행해진 경마에서 龍王舞를 피로	『小右記』永祚1.4.25
秦正近	藤原道長의 随身 右近府生	경마에 出場	『御堂関白記』寛仁1.9.23
秦正親	随身 右近将曹 左近将監	藤原道長의 딸인 嬉子의 五夜産養에 봉사	『御堂関白記』寛弘4.4.20
		敦成친왕의 55일 의식에 봉사하여 賜衣	『小右記』寛弘5.11.1
		行幸시에 경마에 出場	『小右記』長和3.5.16
秦(大秦)武重	随身	馬寮의 馬御覧의식에 騎乗	『御堂関白記』長和1.2.3
		藤原道長의 저택 行幸시, 경마에 出場	『小右記』長和3.5.16
秦武方	藤原頼通의 随身 左近番長	藤原道長의 저택 行幸시, 경마에 出場	『小右記』長和3.5.16
		賀茂신사의 경마에 出場	『小右記』長元4.4.26
		藤原頼通의 新宅의식에서, 갈색의 관을 착용하고 黄牛를 끌고 나옴	『小右記』長元5.4.4
秦武則	藤原道隆의 随身	藤原道隆의 大饗에 봉사	『小右記』正暦4.1.23
秦松吉	随身	大宰帥 平惟仲의 随身	『類聚符宣抄』長保3.5.29
秦吉高(孝)	相撲人	九番右의 相撲에 出場	『小右記』長和2.7.29
		藤原資実에게 高田목장의 말 두필을 하사받음	『小右記』万寿3.8.7
秦常正 (経)(政)	相撲人	二番右에 出場	『小右記』正暦4.7.28
秦正世(代)	相撲人	十二番右에 出場	『小右記』長和2.7.29

【표10】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秦씨는 당시의 藤原道長, 賴通, 兼家와 같은 섭관가 뿐만 아니라 藤原實資, 公季등의 정권의 실세들과도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경마의 출장·봉사↔賜祿형태의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秦씨의 수신가의 계보가 명확하게 나타나는 시점은 10세기 중엽부터 말엽에 이르는 시기로서, 11세기에는 院政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이후 가마쿠라 시대에도 수신직에 임명되는 자가 많았다[37].

秦씨와 藤原씨와의 친밀한 관계는 私領관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藤原公任의 장원에 소속된 寄人들의 임시잡역을 면제해 달라는 長和4년(1015)의 國符를 보면[38], 21명중 11명이 秦씨임을 확인할 수 있다. 장원의 확대를 꾀하려는

37) 中原俊章(1987), 위의 논문, p.70.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섭관가와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임시잡역의 면제혜택을 받으려는 쌍방의 의도가 합치된 결과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寄人의 절반이상이 秦씨라는 점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즉, 수신직을 가직으로 형성해 간 秦씨 가문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이들도 수신직을 거쳤거나 장원의 관리와 보호라는 측면에서 이들도 무인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여 秦씨가 섭관가에 近侍하면서 수신직에 임명되었을까 하는 점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承和의 변은 관인사회에 크나큰 지각변동을 초래하였다. 이 변란은 左右近衛府와 같은 무관직의 승진에까지 파장을 미쳐 상급 무관직에도 특정 귀족들만이 임명되는 귀족화의 경향이 나타나게 되었다. 나아가 섭관체제가 확립됨에 따라 귀족화의 흐름은 少将을 포함한 近衛府의 상급직에까지 확대되어 少将 및 中将의 지위가 公卿으로 승진하는 데 필수코스로서 자리매김하기에 이르렀다[39].

이와 같이 藤原씨를 필두로 하는 정계의 유력씨족에 의한 무관의 귀족화는 고래부터 무예의 가문을 형성해 온 坂上씨의 승진에도 제약이 가해졌다고 생각된다. 이 시기는 蝦夷정토와 같은 국가적인 사업에서 공훈을 세울 기회도 희박해지며, 대대적인 무공보다는 섭관가의 수신직 혹은 궁정에서의 경마나 相撲과 같이 귀족들을 위한 武戯에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능 보유자가 중용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坂上씨도 가문차원에서 전승되는 무예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헤이안 전기까지는 射禮의 전통이 가직으로 계승되었다는 사실을 여러 졸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즉,『日本三代実録』元慶5년(881) 11월 9일 癸丑조의 坂上大宿祢滝守의 졸전을 보면 '幼好武藝, 便習弓馬, 尤善歩射. 坂氏之先, 世傳将種. 滝守韜略, 不遂家風. 承和十年, 年十九歳起家, 為左近衛将曹, 歩騎兼射, 供奉節会'라 전하며, 滝守는 무엇보다도 歩射가 뛰어나며 坂上씨는 선조 대대로 무장의 가문이 전승되어 滝守의 시대에도 가풍이 실추되지 않았다는 사실과, 滝守가 節会에서 歩騎와 歩射를 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滝守뿐만 아니라 坂上大宿祢清野와 當道의 졸전[40]에서도 이들의 騎射에서의 뛰어난 기량에 대해 언급하고

38)『朝野群載』巻22, 諸国雑事条, 赤穂郡司.
39) 笹山晴生(1985)「承和の変以降の推移」『日本古代衛府制度の研究』東京大学出版会, p.77.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있다. 滝守가 節會에서 봉공한 步射는 천황출어의 장에서 弓射를 겨루는 射禮의식을 말한다. 이 의식은 大化년간부터 중세까지 계승되었던 연중행사로, 정월 17일을 전후로 하여 행해진 경우가 많은데, 9세기 후반 淸和조 이후부터는 천황의 의식참가가 감소하면서 헤이안 말기에는 점차 射禮의식이 형해화되어 갔다[41]. 반면 경마의 경우는 공식적인 행사이외에도 離宮, 行宮 및 섭관가의 저택, 신사에서도 임시적으로 경마가 행해지는 등[42], 射禮보다는 빈번하게 이루어지면서 천황과 귀족들이 선호하는 무예행사로 확고하게 자리매김 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秦씨중에는 헤이안 전기부터 近衛관인이나 舍人에 보임된 예가 다수 확인되는 바와 같이[43], 경마 등과 같은 무예를 보유한 秦씨가 藤原씨와의 관계를 맺으면서 발빠르게 수신직에 임관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한편, 秦씨의 수신직 보임에 대해 전통적인 씨족적 연원에서 지적하는 견해가 있다. 이른바 秦씨가 聖德太子의 黑駒를 끌었다고 전해지는 秦河勝의 후손이며 이것이 수신직의 역할과 유사하기 때문[44]이라는 이유에서다. 즉, 『上宮聖德太子傳補闕記』에는 用明천황 2년 7월에 物部守屋의 토벌시 '軍政人秦河勝, 率軍奉護太子'라고 전하는 바와 같이[45], 당시 세도가였던 藤原씨족들은 진하승의 '奉護太子'의 역할을, 수신직의 秦씨에 의한 '奉護藤原氏'의 역할로 치환시켰던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표10】을 통해서도 秦씨가 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식에 참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秦近年은 경마뿐만 아니라 천황이 御馬를 감상하는 의식에서 승마의 임무를 수행하였고, 秦武重도 馬寮의 馬御覽의식에서 騎乘의 역할을 맡았다. 御馬乘(騎)의 역할은 단순히 말에 기승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40) 『文德天皇実録』嘉祥3년 8월 己酉조의 坂上大宿祢清野의 졸전에는 '少慣家風. 武芸絶倫. 嵯峨太上皇. 在東宮時. 年十八為春宮少進. 是時. 天皇御武德殿. 特簡天下騎射抜群之士廿人. 覽其才品. 爰清野以春宮少進. 独忝其選'라고 전하고 있다. 또한 『日本三代実録』貞觀9년3월己酉조의 坂上大宿祢当道의 졸전을 보면 '当道少好武事. 便弓馬善射. 兼有才調' 라 하여 弓射에 재주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1) 阿部猛·義江明子·相曾貴志編(2003) 『平安時代儀式年中行事事典』 東京堂出版, pp.48-50.

42) 阿部猛·義江明子·相曾貴志編(2003), 위의 책, p.122.

43) 笹山晴生, 前揭書,「毛野氏と衛府-平安時代左右近衛府下級官人·舍人に関する一考察-」 pp.305-306.

44) 中原俊章, 前揭載, pp.72-73.

45) 大和岩雄(1993) 『秦氏の研究』 大和書房, p.391.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아니라 의식 후에는 논공행상이 주어지는 등 천황과의 긴밀한 인격적 관계가 추정되는 만큼[46], 무관이라고 해서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역할이 아니었다. 특히 일본에서는 10세기로 접어들자 국풍문화의 기운과 맞물리면서『聖德太子傳曆』의 편찬을 비롯하여 성덕태자 신앙의 융성기를 맞이하게 되는 데[47], 진하승의 전승과 함께 실제적으로도 나라시대에 천황의 호위역할을 수행한 秦씨는 최고 집권자에 대한 호위와 近侍를 표상하는 씨족으로서의 주술적인 인식이 크게 작용하여 수신직의 보임으로 이어졌던 것이라고 하겠다.

秦씨와 같이 헤이안 중기에 수신직의 가문을 이어간 비도래계 씨족으로는 播磨씨와 屋張씨가 있는 데, 각각의 가문에는 '先祖의 秘說'이 존재하여 후손들에게 전수되었다고 한다[48]. 물론 秦씨에게도 고유한 무예의 기능이 秘說로서 전승되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여타 씨족과는 차별화된 씨족적 연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수신직이 가직으로 계승되어 갔다고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Ⅴ. 결론

이상으로 관사 및 외기, 악인, 수신직을 중심으로 이들 도래계 직능집단의 특징에 대하여 개괄해 보았다.

먼저 외기와 관사직은, 태정관내의 기록문서에 정통한 자가 임명되는 중요한 직책이었다. 헤이안 시대로 접어들면서 의식의 증가와 함께 문서행정은 더욱 진전되었을 것이며, 율령국가 체제의 이완에 따라 정치의 중심이 후지와라씨의 가산지배체제로 이행됨에 따라 외기와 관사직의 중요도는 한층 더 커져가는 시대였다. 이러한 문필 업무직에 도래계 출신들이 나라시대부터 헤이안 중기이후까지 연속적으로 등용되었다는 사실은, 도래계 씨족들에게는 직장의 메뉴얼과 같은 고유의 지적재산이 家傳되었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

46) 佐々木恵介(1993)「『小右記』みる摂関期近衛府の政務運営」『日本律令制論集』下 吉川弘文館, p.356.

47) 榊原小葉子(1999)「古代における対外意識と聖徳太子信仰-百済観を中心として-」『歴史評論』586, p.45.

48) 笹山晴生, 前掲書,「毛野氏と衛府-平安時代左右近衛府下級官人·舎人に関する一考察-」, p.305.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헤이안 시대로 접어들자 아악료 중심의 전통적인 아악체계는 당악 및 고구려악의 양부체제로 재편되었고, 도래계의 多, 狛, 豊原씨는 고유한 악가의 가문을 형성해가며 左右近衛府에 소속되어 경마나 相撲과 같은 무예의 의례공간에서 주악을 담당하였다.

또한 무관직을 살펴보면, 섭관가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秦씨가 수신직에 임명되어 후지와라 씨족의 신변 경호 및 武儀를 담당하였고, 御春씨도 귀족들의 무예적 유희라고 할 수 있는 경마에 출전하는 등, 무공이라는 전통적인 무관의 이미지는 퇴색하며 경호 및 무예의 기능자라는 성격을 농후하게 띠게 된다.

나라시대부터 헤이안 전기까지는 천황과 개개의 관인은 위계를 매개로 하여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갔지만 헤이안 중기로 접어들자 섭관가 뿐만 아니라 藤原實資, 行成 등과 같은 정계의 유력자와 家人, 家司라는 개인적인 관계를 통하여 昇官되는 경우가 종종 확인되었다. 이러한 등용방식을 두고 섭관가와의 사적인 관계에 편중된 인사라고 단순화시켜 말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당시의 세도가들은 그들의 자의적인 의도를 배제하여 정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힘쓴 사실이 사료에서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49], 천황제가 형해화되어 가는 시기에도 하급의 유능한 실무자의 존재는 필수 불가결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多政方의 예에서도 알 수 있듯이 중·하위의 관인들에게도 일정한 논공행상의 법칙은 관철되고 있었다.

또한 헤이안 중기이후는 특정씨족에 의한 관직의 독점화가 심화되어 가는, 이른바 유동성이 없는 계급질서의 사회 속에서 외기직, 관사직, 左右近衛府등과 같은 각 출신들이 일정한 승관제도를 정착시켜갔다. 나아가 중소씨족들은 가문의 고유한 직장의 계승이야말로 씨족차원에서의 사활이 걸린 문제였으며, 결과적으로는 -道, -家의 형성을 통해 그들 스스로의 정체성을 확인해 가는 시대였다고 생각한다.

특히, 헤이안 시대까지 도래계 씨족들이 소멸되지 않고 나름대로의 직능 집단으로서 자리매김되고 있었다는 사실은 이들 집단의 직능의 고유성이 함의하

49) 曾我良成(1985)「官司請負制下の実務官人と家業の継承」『古代文化』37, p.22.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본고의 秦, 惟宗, 菅野씨등은 나라시대부터 五位이상의 귀족관인을 배출한 씨족으로서 헤이안 중기이후에는 가문의 고유한 직장을 계승해 가는 형태가 많았다. 이에 반해 비도래계 씨족을 보면, 관사직에서는 小槻씨와 中原씨가, 수신직에서는 尾張씨 및 播磨씨가 각각의 가직을 계승해 가는 데, 이들 씨족은 나라시대에는 활약이 보이지 않았던 신예씨족이다. 즉, 도래계 씨족은 나라시대부터 헤이안 중기이후까지 연속성을 유지하며 일본 고대 관료제 사회 질서에 흡수되어 갔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다른 의미에서 해석하자면, 도래계 씨족들은 관인사회의 시류에 편승해 갈 수 있는 내재적 차원의 역량을 겸비했다는 뜻도 될 것이며, 당시의 세도가들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다는 차원에서도, 관인사회에서 차지하는 도래계의 위상은 '才技와 기능'을 상징하는 존재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었다는 증거라고 생각한다.

고대 일본사회에서 도래계 씨족들이 대별되는 존재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도래계 씨족에 대한 인식이 일본적인 번관념속에서의 타민족지배의 상징이라던가, 영원히 왕권에 귀속되어야할 존재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중세까지도 이어지고 있었다[50]는 사실이 이를 말해준다고 하겠다. 하지만 헤이안 시대의 도래계 직능집단에 대해서는 민족과 국가라는 번 관념의 패러다임을 상대화시켜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즉, 타자화시키는 측에서의 일방적인 시선을 함의하는 부정적인 존재가 아니라, 타자화시키는 측과 타자화되는 측(도래계 씨족)사이에는 쌍방향의 접점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를테면, 타자화시키는 측은 본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야마토 정권기부터 문필직의 전통이 계승되었던 사례와, 악인인 狛好行에 대해 고구려인의 후예로서 '狛'성을 하사한 사실 및 진하승의 연원을 기반으로 한 秦씨의 수신직의 계승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가직과 도래계를 필요충분조건으로 인식하고 있는 점이다. 또한 도래계 씨족들은 선조가 도래계라는 출자를 공공연하게 언급하며 개성을 청원하거나, 본고에서는 다루지는 않았지만 11세기 중엽부터 관사직의 가문을 이어간 三善씨는 가문의 선조를 백제계로 명시하고 있으며, 명법도의 惟宗씨도 선조의 출자를 기록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쌍방향의 접점은 '도래계=번'이라는 관념이 배타적인 개념으

50) 田中史生(1997)『日本古代国家の民族支配と渡来人』校倉書房, pp.138-139.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로 인식되기 보다는, 중·하급의 관인사회에서는 가문특유의 가직을 보유한 직능적 집단의 보증수표와 같은 성격을 내포하고 있었다고 정의내릴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한홍섭(2000)『악기로 본 삼국시대 음악』책세상문고, pp.29-30.

이지선역(2003)『일본음악의 역사와 이론』민속원, p.43.

阿部猛·義江明子·相曾貴志編(2003)『平安時代儀式年中行事事典』東京堂出版, pp.48-50.

荻美津夫(1997)『日本古代音楽史論』吉川弘文館, p.56, pp.216-217, p.231, pp.240-241, p.260, pp.263-266, p.267.

佐伯有清(1982)『新撰姓氏録の研究』考証篇5 吉川弘文館, pp.472-473.

榊原小葉子(1999)「古代における対外意識と聖徳太子信仰-百済観を中心として-」『歴史評論』586, p.45.

佐々木恵介(1993)「『小右記』みる摂関期近衛府の政務運営」『日本律令制論集』下 吉川弘文館, p.356.

笹山晴生(1962)「平安前期の左右近衛府に関する考察」『日本古代史論集』下 吉川弘文館, pp.596-597.

_____(1985)「承和の変以降の推移」『日本古代衛府制度の研究』東京大学出版会, p.77.

佐藤堅一(1964)「封建的主従制の源流に関する一試論」『初期封建制の研究』吉川弘文館, pp.278-279.

曾我良成(1985)「官司請負制下の実務官人と家業の継承」『古代文化』37, p.22.

高田淳(1988)「「巡爵」とその成立-平安時代的叙位制度の成立をめぐって-」『国学院大学紀要』26, p.116.

田中史生(1997)『日本古代国家の民族支配と渡来人』校倉書房, pp.138-139.

玉井力(1964)「承和の変について」『歴史学研究』286, p.23.

所功(1970)『三善清行』吉川弘文館, p.120.

永田和也「大内楽所と藤原道長の家楽所」『国史学』136, pp.55-56.

中原俊章(1996)「平安中後期の官人」『歴史評論』559, p.41.

_____(1987)「随身と雑色」『中世公家と地下官人』吉川弘文館, pp.63-64.

林屋辰三郎(1970)「雅楽の源流」『雅楽』平凡社, p.37.

松薗斉(1997)「外記局の変質と外記日記」『日記の家—中世国家の記録組織—』吉川弘文館, p.282.

大和岩雄(1993)『秦氏の研究』大和書房, p.391.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渡辺直彦(1972)「藤原実資家「家司」の研究」『日本古代官位制度の基礎的研究』吉川弘文館, p.252.

❖ 투고일 : 2011.12.31
❖ 심사일 : 2012.01.27
❖ 심사완료일 : 2012.02.02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